

잡아함 1 무상경

날짜: 10월 6th, 2023

출처: <http://www.dhamma.kr/wp/?p=17447>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즐겨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즐겨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심해탈이라 한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도 또한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즐겨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즐겨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심해탈이라 한다.

이와 같이 비구들아,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만일 스스로 증득하고자 하면 곧 스스로 증득할 수 있다. 이른바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 것이다.

‘무상하다’라고 관찰한 것과 같이, ‘그것들은 괴로움이요, 공하며, 나가 아니다’라고 관찰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요약

오온은 무상, 괴로움, 무아, 공한 것이라고 관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다.

이렇게 바르게 관찰하면, 오온에 대한 기쁨과 탐욕을 끊고, 심해탈을 얻게 된다.

나아가 해탈지견을 얻는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